

## 광주를 색깔로 뒤덮은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보훈부·보훈단체 등 총공세  
광주, 이념 논쟁에 휩싸여  
강기정 시장·광주시의원들  
“기념사업 보수정부서 시작”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가보훈부, 보훈·보수 단체 등이 사업 철학을 요구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광주가 때마침 이념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애초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이라며 추진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철회에 불을 지폈던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28일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적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사업 철회에 장관직까지 걸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이날 호남학도병 성지인 순천역을 찾아 “법적인 문제도 여러 방면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헌법소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날 순천에 호남학도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현충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광주 보훈단체들도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 영웅 정율성 공원 조성에 호국영령들이 통탄한다”고 비난했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전사한 고(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씨도 참석해 “광주 정신은 공산주의자를 기념하는 정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자유통합당 광주시·전남도당 역시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다.

참여자들은 ‘시민 헬스 48억원 정율성 사업 반대’, ‘여기가 평양이나, 광주냐’, ‘공산당 나팔수 정율성 사업 철회’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태극기를 흔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4·19 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등 5개 단체는 조선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 등 3개 중앙일간지에 역사공원 건립 반대 광고를 싣기도 했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다”며 사업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나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기인 1988년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해 35년 간 국익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했던 사업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은 “(기념사업) 시작은 1988년으로 서울 올림픽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율성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이 출발점이었다”면서 “광주시도 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정율성 선생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했고, 기념사업도 2002년부터 5명의 시장이 바뀌는 동안 시민의 의견을 모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로 했다.

강 시장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인 1993년 문체부에서 한중수교 1주년 기념으로 정율성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1996년에는 문체부 주관 정율성 작품 발표회가 열렸다. 국립국악원이 소장 자료를 기증받은 것을 계기로 문체부 장관이 정설송 여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 정율성 곡이 연주되는 퍼레이드를 참관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는 국립국악원 70주년을 기념해 그의 미공개 소장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등에서 이어진 사업 철회 촉구 집회와 관련해서도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를 부추겨 광주를 다시 이념의 잣대로 고립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가와 함께 추진했던 한중우호 사업인 정율성 기념사업은 광주시가 책임지고 담당하게 잘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도 이날 시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광주는 노태우 정부부터 이어져 온 한중 친선과 문화교류를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결코 정율성 선생을 영웅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 있다”며 “광주를 표적 삼아 이념 갈라치기하려는 정부와 집권 여당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이 2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23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이날 안세영은 스페인의 카를리나 마린을 2-0(21-12 21-10)으로 누르고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단식 종목을 제패했다. /연합뉴스

## 나주출신 안세영 ‘셔틀콕 여왕’ 올랐다

풍암초·광주체중·체고 졸업  
한국 첫 세계선수권 단식 우승  
‘K 배드민턴’ 새로운 역사 써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체육중·고교를 졸업한 안세영(21·삼성생명)이 한국 배드민턴 단식 사상 처음으로 세계개인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다.

<관련기사 22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7일(한국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로열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세계 6위 카를리나 마린(30·스페인)을 2-0(21-12 21-10)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재작년 8강, 작년 4강에서 반반이 ‘속작’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에게 가로막혔던 안세영은 올해는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린은 이번 대회에서 타이즈잉(대만·세계 4위), 야마구치(세계 2위)를 연달아 꺾었으나 안세영을 넘어설 수 없었다.

남녀를 통틀어 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 단식 종목을 제패한 것은 안세영이 처음이다.

1977년 시작한 이 대회가 올해 28회를 맞는 동안 한국 단식은 준우승 2차례, 3위 9차례에 그쳤다. 여자 단식 방수현이 1993년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해 은메달을 획득했고, 1995년 박성우가 남자 단식 준우승을 차지했다.

30여 년이 흘러 안세영이 한국 단식의 46년 무관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 대회는 1977~1983년에는 3년 주기, 1985~2003년에는 2년 주기로 열렸고 2005년부터는 올림픽이 있는 해를 제외하고 매년 열리고 있다.

안세영은 이번 우승으로 올해 8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우승 7번, 준우승 3번, 3위 1번을 기록하며 이달부터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나주시 이창동이 고향인 안세영은 아버지(안정

현 나주시체육회 사무국장)를 따라갔던 배드민턴 동호인 클럽에서 라켓을 잡았다. 아버지는 배드민턴에 소질을 보이자 나주 중앙초 1학년 때 광주 풍암초로 전학시켰다.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의 스승인 최영호 감독에게 본격적으로 배드민턴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2017년 광주체중 3학년 때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해 2018년부터 성인 대표팀에서 뛰었다. 이때부터 ‘셔틀콕 천재’로 불렸다. 광주체고 졸업 후 곧바로 삼성생명에 입단했다.

안세영은 시상식이 끝난 뒤 영어로 “오늘은 내가 챔피언이다. 경기를 이겨 정말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국어로는 “즐거니까(배드민턴이) 잘 되는 것 같다”면서 “(오늘 결승전을) 정말 잘 즐겼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여수 ‘엽기적 죽음의 게임’ 설계자 있었다 ▶6면

굿모닝 예향-이탈리아 나폴리 문화기행 ▶18·19면

KIA, NC·SSG와 6연전...순위상승 노린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내일이 빛나는 광주  
기회도시 광주

## 추석 명절맞이 광주상생카드

# 10% 특별할인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명절 특별 할인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내용
대상카드	광주상생체크카드, 광주상생선불카드
특별할인기간	2023. 9. 1. ~ 9. 30.
할인한도	1인당 월 50만원 (상생체크카드+상생선불카드 통합)
특별할인율	10%

※ 추석 명절맞이 특별할인으로 할인기간 종료시 상시 할인율(7%)로 자동 변경 적용 됩니다.  
※ 월 자동충전 신청 고객의 경우 특별할인 기간 동안 자동으로 특별할인율(10%) 적용되어 충전됩니다.

문의처 광주은행 전 영업점 또는 카드헬프센터(T.1577-3650)

광주상생카드